



동 틀 때까지 담담하게 맞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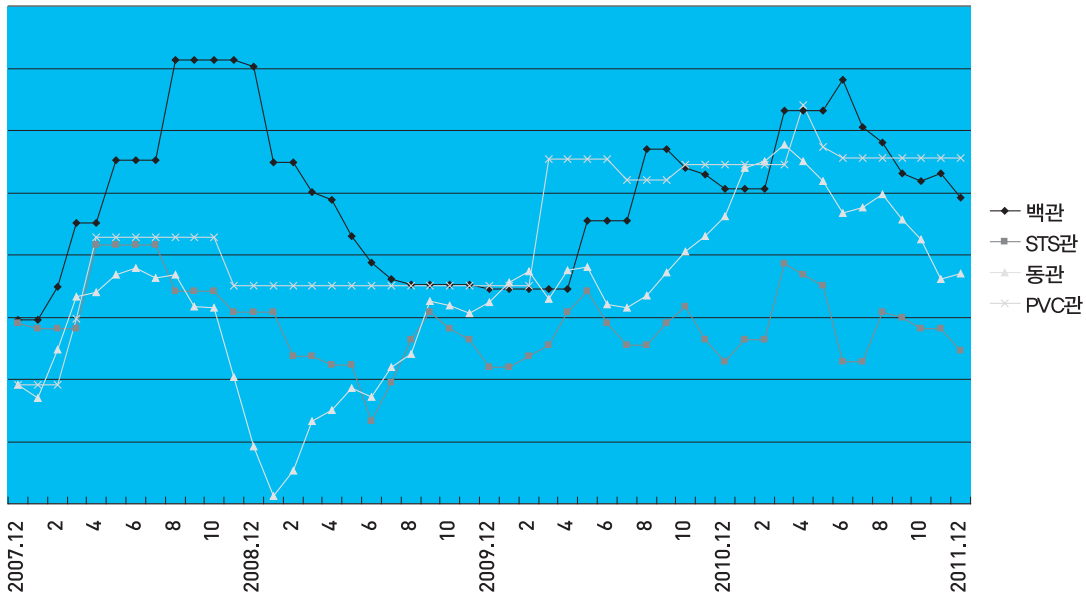
김현회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임진년 새 해가 밝았다. 새 해 하면 큰 소망(大望)을 떠올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그보다 왜란과 충무공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일까? 아마도 올 한 해 우리 업계가 극복해야 할 많은 어려움 탓일 것이다. 2012년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트기 전 어둠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 또 어느 정도 어둠에 대한 내성도 쌓였다. 그렇다면 담담하게 준비하고 싸울 일이다. 승리하고 마침내 찬란한 여명을 볼 때까지...

(2011년 12월~ 2012년 1월 자재 동향)

자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1월, STS관 동결 또는 소폭 인상 예상 - 강관류 추가적 할인을 인하여 물량에 따라 단가 차별화 전망 - 동 LME 동결 또는 소폭 인상 가능. 환율 및 국제 정세가 변수
강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소재 철광석이 인하되었고 시장 유통 상황도 여의치 않아 강관 할인율이 인하되는 추세 임. 추후 시장 상황은 유럽 등 국제 경기 여건과 국내 건설 시장의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음
동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12월 LME 시세는 57원 인상된 8,825원으로 확정 - 2011년 12월초부터 원자재 시세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이것이 바로 동관 시세에 반영되기보다는 중국, 미국 등의 구매 물량과 유로존의 경기 상황에 따라 가격 등락 시기 및 폭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STS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STS관 BASE는 동결됨 - 원소재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이나 시장에서는 단가가 인하되는 추세로 유통
구매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의 변동, 미국, 중국의 원자재 수출입 물량 변화, 유로존의 위기 상황 등 국제적인 변수가 많고, 국내 건설 경기의 회복세도 순조롭지 않아 당분간은 자재 시장이 소강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파악됨. 각 변수에 대한 핵심 정보 파악이 중요하므로 정보망을 풀가동하고 기존 주요 거래 업체와의 신뢰 관계도 돈독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4년간 주요 관류 가격 변동 추이]



(자료: 원켄네트웍스, 2012년 1월)

설비건설사의 원가는 크게 자재비와 인건비로 나눌 수 있다. 편법을 쓰지 않는 한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가 손익을 결정한다. 잘 알다시피 인건비는 거의 고정적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임 단가를 대폭 낮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은 자재비를 얼마만큼 절감하느냐가 손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자재 단가를 결정하는 변수는 크게 예측 가능 변수와 돌발 변수로 나눌 수 있다. 예측 가능 변수라면 구매 물량과 결제 조건 등이다. 이에 따라 단가에 차이가 있음은 누구나 안다. 문제는 예측 불허의 변수이다. 예를 들어 전쟁, 자연재해, 금융위기 등이다. 2008년, 그리고 근래의 국제 경제 위기 등은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었고 그 영향은 지극히 크고 오래 지속됐다.

올해도 자재 단가는 예측 가능 변수보다는 계절라식 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아직 불안하고 유럽은 계속 살얼음판을 걸을 것이며 거기에 북한의 권력이양 또한 하나의 변수로 거들먹거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돌발 변수에 완벽히 대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과거 통계자료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문의 그래프 분석은 그 좋은 예이다. 가격이 급등락할 때 국제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동관, STS관, 강관의 순서로 가격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토대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예측 가능 변수 면에서는 단연 결제 조건이 중요하다. 수요가 받쳐 주지 않고 악성 채권이 빈발하는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결제 조건이 당연히 자재 단가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경우 회원사들의 재무 상태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2012년도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견디어 낸 저력으로 회원사 모두가 견실한 성과를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현희(金炫會) 총괄본부장

- 現 원켄네트웍스 사업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 삼성그룹 디자인연구소 및 UCLA Extension 수료(멀티미디어 부문)

- 삼성화재 홍보, 시장개발, 인터넷 사업 담당(사보, 사장단 연설문, 방송PD, 보도자료, 인터넷 기획, 전국 애니카랜드망 구축 등 담당)